

미키마우스의 원피스 상황문 답

미키마우스



소개글

원피스 초보 덕후 미키마우스의 달달~한 상황문답!
상황문답 속 여주와 원피스 남자캐릭터 들과의 달달한 인연이
시작된다!

목차

1	*원피스 상황문답*1화. 친구에서 연인으로	4
2	*원피스 상황문답*2화. 자기야	11
3	*원피스 상황문답*3-1화. 질투	17
4	*원피스 상황문답*3-2화. 질투	25
5	*원피스 상황문답*4-1화. 첫만남(회상)	35
6	*원피스 상황문답*4-2화. 첫만남(회상)	42
7	*원피스 상황문답*5화. 그는 늑대	49
8	*원피스 상황문답*6-1화. 데이트	55
9	*원피스 상황문답*6-2화. 데이트	62
10	*원피스 상황문답*6-3화. 데이트	68

01

*원피스 상황문답*1화. 친구에서 연인으로

안녕하세요 미키마우스 입니다!
원피스 덕후라고는 하지만...
덕후같지 않은 덕후로서 좀 초보랍니다 하하하!
원피스를 제대로 알게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시다.
우연히 집에서 원피스를 보게 됐는데...
아니?!?! 이것은 진정 내가 찾던
친구들간의 우정이 돋보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액션과
희귀한(?)능력자들이 있는 애니로다!
하고 덕후질을 시작...;;
에이스, 키드, 로우 이런 남캐들은 아직 잘 모른답니다...ㅠㅠ
엄청난 덕후 초보예요...ㅠㅠ
그래도! 메인 남캐인 조로, 상디, 루피!
이 세명의 캐릭터들로 상황문답을 쓰려 하는데...
잘 쓸까요?ㅠㅠ
아무쪼록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 "은 남캐고 ' '는 여주입니다!
여주 이름은 여주예요 ㅋㅋㅋ

원피스 상황문답

1화

-친구에서 연인으로-

-루피-

해적단의 같은 선원으로서 나는 그저 루피를 친구로만 생각하였다.

처음 내가 해적단에 들어왔을 때

유일하게 내가 먼저 기댈 수 있었고

언제나 내가 편하게 대할 수 있고

남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를 의식하지 않으며

같은 해적단으로 생활한지 1년.

나는 평소와 같이 우리의 선장 루피를 부르고는 다음 목적지를 정한다.

'루피! 여기여기! 여기 어떨까? 내가 나미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말야..

여기에 숨겨진 보물이 있다고 하네? 물론 내가 원해서 추천하는게 아니라

나미가 하아아아~도! 좋아하길래...헤헤 아무튼 여긴어때?...루피?

내가 신나게 얘기하며 내가 추천하는 섬을

설명하는데 그는 내 말이 들리지 않는건지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만 있다.

'얼레? 루피?

나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루피의 이름만 불러대었다.

흐음.... 뭐야... 왜 이렇게 멍 때리는 거지? 그렇다면...

나는 루피의 두 볼을 양손으로 잡고 얼굴이 들이밀어 크게 소리질렀다.

'루우우우우우우---피이이이이이이이이---!!!!!!'

"어,어?! 미안 뭐라고 했어?이시잇-"

'에효... 그니까 어떡냐고!!!!'

답답한 나는 괜한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질렀다.

"뭐뭐뭐뭐뭐뭐?!?!?!?! 어..어떻냐니..그..그야.."

루피는 자기 양볼을 감싸고 있는 내 손을 보고서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눈알을 데굴데굴 굴리다가 한숨을 쉬고는 진지한듯이 날 똑바로 쳐다보았다.

뭐..뭐야 갑자기... 왜 진지해지고 이러는거지?

난 멍뚱멍뚱 가웃거리며 쳐보았다.

루피는 자기 볼을 감싸고 있던 내 두손을 잡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난 여주 니가 좋은데 넌 나 어때?"

+내가 추천하는 목적지가 어떡냐고 물었는데 대뜸 고백하는 해적단의 선장+

-상디-

"여주양~~~~~! 오늘은 오므라이스 이랍니다!"

'우와아아아! 짱 맛있다! 최고예요!'

그가 만든 오므라이스를 한술가락 먹어보았는데
역시 그 답게 엄청난 맛을 뽐내는 오므라이스였다.

"여주양이 맛있다니 다행이에용~~!"

처음으로 이 해적단에 들어왔을 때는 상디가 들러붙어 좀 짹짹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져 눈이 하트로 뿡뿡 변하는 모습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여자를 밝히고 여자를 평소에 좋아하는 상디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 까 하는 의문이 든 것이다.

'진심이라... 흠... 상디라면... 그런 사람이 있으려나?'

"넵? 뭐라고 하셨죠 여주야아아아아아앙?"

'에?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하려고 하다가 기왕 궁금해진 거 물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물어보기로 결심하였다.

'있잖아~ 상디는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에?"

살짝 당황하고 놀란듯한 눈치를 보이는 그. 역시 뜬금없는 질문이었나...

허무한 반응에 대충 넘기려 한 그때.

상디가 진지한 얼굴로 다른 선원들을 먹일 오므라이스를 만들다 말고 나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없을 거 같아요?"

나에게 바짝 다가와

나를 침착한 표정으로 대뜸 나에게 묻는 상디.

무언가 긴장되는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그야... 상디는 항상 여자 밝히고... 평소에 좋아하니까...그니까..음...'

나도 모르게 우물쭈물 말하였고 그와 닿으려 말락 하는 가까운 거리가 신경쓰였다.

"당연히 있죠~ 없겠어요?"

긴장되는 분위기를 뚫고 다시 원래의 상디처럼 해맑게 말하는 그.

'헤에~ 그렇구나..'

있다고 하니 왠지 모르게 아쉬운 마음과 섭섭함이 느껴졌다.

항상 여자만 밝히는 상디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니... 부럽네..

'그 사람은 어떤 여자야?'

"음... 다 말하려면 한시간도 모자랄 만큼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자예요.
항상 내가 만들어주는 요리마다 맛있다고 해주고 내가 철없이 여자만 밝히고 좋아할 때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따뜻한 여자예요"

상디는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으로 말하였고 그런 새로운 모습의 그가
왠지 멋져보이고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여자가 내심 부러워졌다.

"그런 여자가 당신이에요 여주양"

'...에...에?'

"내가 철없이 굴고 얄미워도 항상 이해해줘왔던 것처럼..."

평생 내 옆에서 내 사랑받으면서 살아줄래요?레이디?"

+로맨틱한 분위기를 리드하며 그대로 좋은 타이밍에 고백하는 역시 뭘 좀 아는 요리사 님+

-조로-

"흐아암...쿨...."

어젯 밤, 갑자기 공격해온 다른 해적단과 싸우느라 지쳤는지

오늘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굶아떨어진 그.

항상 묵묵히 다른 선원을 도와주며 내심 신경을 써주며

열심히 싸워주는 그에게 오늘 따라 고마워졌다.

처음으로 해적단에 들어왔을 때 엄청난 카리스마와 포스를 풍기던 그가
무서웠지만 은근 허당이면서 길치인 좀 바보같은 그가 귀엽게 느껴졌다.

좀 쌀쌀한 날씨 때문에 감기걸릴까 하는

걱정에 담요를 가져와 그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흐음...쿨..."

조용히 잘도 자는 그가 왠지 귀여운 아기처럼 보여

나도 모르게 피식-웃음이 나왔다.

호기심에 그의 볼을 쿡쿡 찌러보았다.

'얼레? 조로의 볼은 아예 살이 없어...'

어제 열심히 싸우느라 볼이 썩 들어간건지 그의 살갍지 않은 살을 만지는게 신기했다.

'조로 많이 힘들었구나... 추울텐...'

갑자기 불어오는 세찬 바람에 나도 모르게 조로의 품에 안겨버렸다.

'으악! 어후... 깜짝이야.. 왜 바람이 갑자기 이렇게 부는...'

"여주 너... 뭐하는거야..."

허걱 그였는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그를 안아버린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새빨게져있었고 당황한 얼굴이었다.

'아.....가..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나도 모르...게..그..니까! 음..그..그런거라고! 아하하하..'

"어...음...그래...음.."

침묵...

으아...뭐야 진짜....뭐 어떻게 말해야하지?근데...조로 몸이 되게 단단하다..

그리고 따뜻해...

난 그에게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그를 꼭 안고만 있었다.

"너..."

'아아! 미,미안! 난 이만 떨어져 줄게!하하...어레?'

그에게서 떨어지려고 그의 허리를 안고있던 내 팔을 뺐다.

그때.. 그가 다시 내 팔을 붙잡고는 잡아당겨 다시 내가 그의 품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다.

'무..무슨...'

"츨잡아. 안겨있어. 바람 그칠 때까지."

내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고 그의 상태를 보기 위해 살짝 고개를 들었는데...

오 마이 갓..

그가 날 지긋이 엄청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게 아닌가?!

나도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었고 내 얼굴은 새빨게졌다.

"하아...못 참겠다..."

'으...응?뭐라고?'

"고백... 못 참겠다고..."

'....하?!?'

"좋아해 아니 사랑해 여주야"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는 부끄러워 하면서도 고백을 받아준게 기쁜지 한시간째 놓아줄 생각을 안하는

검사 조로+

와아아아! 드디어 저의 첫! 글이 끝났네요!

비록 부족하더라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글과 공감은 미키마우스에게 에너지의 활력소나 마찬가지!

덧글과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은 센스있으신 분들!

불법도용을 할 경우에는 법적대응!

원피스 상황문답 1화

The end.

02

원피스 상황문답 2화. 자기야

01.14
2014

*원피스 상황문답*2화.자기야

안녕하세요 미키마우스 입니다!
방금 원피스 상황문답 쓰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잘했죠? ㅋㅋㅋ
이번 편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이번 편은 1화와 이어집니다!
" "은 남캐고 ' '는 여주입니다!
여주 이름은 여주예요 ㅋㅋㅋ

원피스 상황문답

2화

-자기야-

-루피-

그의 고백을 받고 왠지 친구가 아닌 연인이라고 하니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친구로만 의식하던 그를 내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니

무언가 어색하고 이상하게만 느껴졌다.

그렇게 나 혼자서 방안에서 고뇌를 하던 그때.

벌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여주야아아아아~!!! 이시릿~"

사귀기 이전과 같이 헤맸게 웃으며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어,어...'

나는 어색하게 웃으보이며 그를 맞이하였고 연인사이로서 무언가 부족하게 느껴졌다.

그게 무엇일까~하고 침대에 걸터앉았던 나의 옆에 털썩 앉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꼼꼼히 생각하였다.

"뭐, 뭐야~ 왜 갑자기 그렇게 쳐다봐아~?이시잇~"

얼굴이 살짝 붉어진 그를 보고는 피식-웃음이 나왔다.

"어어?웃었다!이시잇~"

헤맑게 웃는 그를 예전처럼 그의 이름만 부를 수도 없고..

뭔가 색달라야 하는데....어?

'생각났다아아아아아-----!'

"으악! 깜짝이야! 뭐가 생각나?"

순수한 얼굴로 궁금한듯이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을 뻘히 바라보았다.

하아... 진짜 부끄러운데...

루피는 이말 들으면 반응이 어떨까나?ㅋㅋㅋ

내심 루피의 반응을 기대하며 한번 심호흡을 하고는 말문을 열었다.

'자기야~~~~'

나름 살짝 애교를 부리며 그에게 흔한 커플들끼리 쓰는 호칭을 불러보았다.

역시나 그가 예상치 못한 말에 놀랐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모자 밑으로 보인 의미심장한 그의 올라간 입꼬리가 왠지 불안해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났는데...

덥썩!

그가 내 팔을 잡고는 침대에 눕히고는 그가 내 위에 올라탔다.

"한번만 더 말해주라~ 이시잇~"

'뭐..뭐뭐뭐 뭐!?!?'

난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그러자 그는 태연한 얼굴로 날 쳐다보며 말을 하였다.

"아까처럼 말 해주면 이쁜짓 해줄건데에~?이쁜짓이 뭔지 궁금하지 않아?이시잇~"

헤맑게 웃는 그의 얼굴이 왠지...

가 아니라! 그렇게 순수한 얼굴로 무슨 늑대같은 짓이야!

+순수한 얼굴 뒤에는 늑대같은 그의 모습이 숨겨져 있단걸 알았다면 내 입술은 퐁퐁 붓지 않았을 텐데...+

-상디-

그가 내게 만들어준다는 특별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요리 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니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저 사람이 내 남자구나-하는 생각에 무언가 뿌듯하였다.

요리도 잘해서 맛난 거 먹게 해주고 싸움 잘 해서 날 지켜주는..
그렇게 항상 도움만 주는 그에게 오늘은 내가 보답을 해야할 것 같아 곰곰히 생각에 빠졌다.
항상 전투하다 요리하다 전투하다 요리하다 전투하다 요리하다..

그런 바쁜 일상을 사는 그가 어젯밤 지쳐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흠... 에너지 충전되게 한번 불러볼까?'

후우... 마음을 가다듬고... 하는거야!

'자기야아아~ 오늘따라 멋져보이네?히힃'

항상 이름을 부르던 내가

자기야 라는 호칭으로 자신을 부르는것에 놀랐는지

살짝 어깨가 들썩 거리더니

가만히 있는 그의 모습에

어? 뭐지? 너무 놀랬나?

하고 식탁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가

그의 얼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내밀어 보았는데...

!

어떠한 물체가 순식간에 내 입술을 집어삼켰고

그런 상태로 몇초간 있다가 내 입술에서 떨어졌다.

어버버-하고 병한 내 얼굴을 보고는 싱긋 웃는 그.

"오늘따라 이쁜 짓 많이 하네요~ 여주양~~"

싱글빙글 한 그의 얼굴에 병한 내 얼굴도 퍼치고는 나도 그를 따라

싱긋- 웃어보였다.

그러자 얼굴이 빨게지더니 고개를 핵-돌리는 그.

"그렇게 웃으면 나도 모르게 잡아먹고 싶잖아요~!레이디의 순결은 지켜줘야한다고요! 날 자극하지 마웃!"

얼씨구? 아까 뽀뽀 해놓고는

순결 지키기는 개뿔.

+호칭을 더이상 안 불러주자 안 잡아먹을 테니 불러달라고 떼스는 은근 타이밍 노리는 늑대 요리사 상디+

-조로-

'조로~~~조로오오오~~~!!'

어제 내가 고백 받아준게 너무 기뻐서 밤 늦도록 싱글빙글 웃다가

결국 새벽에 잠들었다는 초파의 말에
그를 깨우려 방에 들어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깨워보려 노력해보지만
역시나 꿈쩍도 않고 잘도 자는 그.
벌써 스무번도 넘게 그의 이름을 불렀건만
계속 이대로 목청껏 그만 부르다가는
내 목이 쉴 것 같아 그를 깨울 방법을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하였다.
그러다 문득 스친 아이디어에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실행에 들어섰다.

'자기야아아아~ 일어나야지~! 여주가 깨워주는데도 안 일어날꺼야~~~?'

역시 자기야 라는 호칭하나에
몸을 움직이며 조금씩 눈을 뜨는 그.
'일어나야지이이~? 조로오오오~'
호오 역시 효과가 있었군.
그의 잠이 확실히 깨게 하기위해
그의 몸을 흔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순식간에 나를 끌어안는 그.
'뭐, 뭐야아아! 일어나라니까! 조로오오!'

"..."

아무 말 안하고 꼭 안은채 놓을 생각을 안하는 그가
나에게 무언가 원하는게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또 뭐어어어~ 뭘 원하길래 이렇게 투정부리실까나~?'

"...흠흠!...음...그러니까...음...ㄷ..자기야..라고 한번만 더 불러줘.."

'ㅋㅋㅋ 그거 해주길 바란 거였어?'

"해줘..."

애타게 원하는 그의 모습이 귀엽고
약올리고 싶어졌다.

'싫은데에~~?'

"...뽕치기 전에 해"

넵 하겠습니다

+분명히 호칭을 불러주었는데도 놓아주지 않는 그가 이상해 고개를 들어보니...너 이자식...또 자냐...+

크크크 꽤 달달하면서도 늑대같은 필이
나는 상문이죠?
음... 이런거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헤헤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공감 댓글은 꼭! 오키?

*댓글과 공감은 미키마우스에게 에너지의 활력소나 마찬가지!
댓글과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은 센스있으신 분들!
불법도용을 할 경우에는 법적대응!

원피스 상황문답 2화

The end.

03

*원피스상황문답*3-1화.질투

안녕하세요 미키마우스 입니다!

다음편에서는...

에이스 님께서 나옵니다~!

와아아아아!

제가 열심히 에이스에 대해서 공부(공부는개뿔열심히영상을보았지요)

를 하여! 에이스에 대해서 쫘~꿈은 알게 된 것!

그래서 다음 화부터 에이스 님은 고정하실겁니다!

이번 편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이번 편은 아주 달달하고 귀여운 면이 잘 살아나는 편입니다!

" "은 남캐고 ''는 여주입니다!

여주 이름은 여주에요 ㅋㅋㅋ

원피스 상황문답

3-1화

-질투-

-루피-

여주&초파

(여주시점)

'웃채!후유... 힘들다...'

얼굴이 멧힌 땀을 닦으며 음식들이 들어있는 상자를 나르고 있다.

'백마의 섬'이라는 섬에서 우연히 그 섬을 침략한 해적들을 물리치게 되었는데

그 보답으로 엄청난 양의 식량을 받은 것이다.

'어휴... 너무 무거운데... 루피한테 부탁해볼까나?'
루피한테 부탁하려는 생각으로 루피를 부르려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역시 선장이여서 그런지 다른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보였다.

'역시 선장이구나... 할 수 없지...'

하고 잠시 내려놓은 상자를 다시 들고 나르려고 한 그때

"어? 여주야! 그거 내가 들어줄까?"

초파가 변신한 채로 내게 물어왔다.

'정말? 고마워 초파아아~'

나는 활짝 웃으며 말을 했다.

"흐흠! 고..고맙기는!..."

'어?초파 얼굴이 빨게졌다! 헤헤'

"아...아냐!"

'아니긴~크큭'

상자를 들고있는 초파와 나란히 걸어가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다.

(루피시점)

"그러면 여기를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면은 괜찮지 않은가?"

'백마의 섬'의 근처에는 이들에 한번씩 커다란 소용돌이가 생기는데

오늘이 그날이라며 나미가 걱정하였고

나는 선장으로 나미와 상의를 하고 있었다.

상의가 끝나고 선장으로서는 해야할 일이 꽤 많은지라 힘들었지만..

"해적왕이 되려면 이 정도 짬이야..휴...아참! 여주는 뭐하러나~?이시잇~"

그세 여주가 생각이 났고 고무고무 능력을 사용해 단번에 여주가 있는

배 쪽으로 갔다.

"여주야아아~....여주야?"

뭐야... 초파가 왜 옆에...

나도 모르게 이상한 감정이 느껴졌다.

아씨 뭐야 나 왜 이러지?

머리를 박박 긁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돌렸지만

다시 여주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아차 여주 짐 나르고 있었지?

"..초파가 도와줬네..."

시무룩 해서서 입술을 삐죽내밀고 옆에 있던 통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씨! 뭐야 초파! 왜 저렇게 여주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는거야! 뭘 얘기를 하는거야...이씨..."

초파가 동료여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옆에서 같이 웃고 있는 사람이 여주라는 걸 보니 계속 신경이 쓰인다.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게 부글부글 솟아올랐다.

결국 참지 못하고 여주에게로 갔다.

"여주!"

'어? 루피구나? 있잖아~ 초파가 내가 들고 있던 상자 들어준거 있지?'

여주 너어어어~! 이씨... 그렇게 웃는 얼굴로 태연하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할지 혼란스럽잖아...

"..."

'루피? 왜 그렇게 시무룩해?'

"아..."

'얼굴이 빨갱네! 어디 아파? 열은 없는거 같은데...'

히힛 여주 손 이쁘다..

잠깐.. 내 얼굴에 손대고 있는게... 여주 손...

나보다 키가 작은 그녀이기에

고개를 들어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고 내 얼굴에 손을 대고 묻는 그녀가 너무 귀엽게만 보인다.

부글부글 솟아오르던 내 마음은 금세 눈녹듯이 녹아들었고 다시 그녀에게 웃어보이다.

"이시싯- 안아파! 여주가 이렇게 만져주면 다 나아! 이시싯-"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을 뺨씩 잡고 내 품으로

끌어들었다.

"이렇게 안으면 더 좋고! 이시싯-"

'뭐..뭐야아아~..'

안그래도 키가 작아 내 품속에 쏙 들어오는 그녀가 미치도록 귀여운데

그렇게 얼굴이 붉어진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더 꼭 껴안는 그녀가 더 귀엽게 보인다.

+얼굴에 손댄거 하나만으로 질투심 싹 사라지는 너란 남자...어쩜 질투하는것도 귀여운 너란 남자..크흠!+

-상디-

여주&조로

(여주시점)

어? 조로 운동하고 있네?

잠시 선장 루피와 같이 조사하러 나간 상디를 기다리는 동안

배에 있는데 조로가 운동을 하고 있었다.

호기심이 생겨 조로가 하는 운동이 하고 싶었고

쭈르르르 달려가 조로에게 부탁을 한다.

'조로! 나도 그거 해보고 싶어!'

"이걸 해보고 싶다고?.."

잠시 멈칫하던 조로가 흔쾌히 허락하고

그와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어..어떻게 해야하는거야?'

"여기서 팔을 굽힌채로 위로 올렸다가..."

그가 하던 운동을 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그의 코치대로

따라하다 보니 그와 내 거리가 무척이나 가까워졌지만

우리 둘은 금세 운동에 푹 빠져 그런 거 따위 신경쓰지 않고 있었다.

'이..이렇게?'

"오 처음치고는 잘하는군"

'진짜?헤헤헤 나 이거에 소질 있나봐!'

조로와 수다를 떨며 상디가 째려보고 있는지도 모른채 운동에 열중했다.

(상디시점)

루피와 같이 조사를 하고 배로 돌아왔다.

조사를 하던 내내 여주양의 생각만 났고

배로 돌아오자 마자 여주양을 부르며 찾았다.

"여주야아아앙~ 저 상디가 왔어요오오~...잔디머리?"

여주양...왜 배에서 무식한 잔디머리와 단들이 있는거죠...?

나 지금 이런 감정 처음인데...

이럴 땐 어떡해야 하죠?

'휴... 이걸 힘들다... 조로가 시범 좀 보여줘!'

"뭐...좋다 봐봐 이렇게 하는거야"

'우와! 조로 짱이다!'

"크흠!..그렇게 칭찬할 필요는..."

'아니야 아니야! 진짜 최고야! 헤헤'

뭐뭐뭐뭐뭐얏?!?? 저 잔디머리 새끼가 왜 여주양의 칭찬을 들으면서

좋아하고 있는거냐고오오오!?!?!?

안돼안돼안돼 위험해위험해!

'어? 상디다! 상디 왔어어어어~?'

아...

하... 여주양은 왜 하필 이럴때 제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오는거죠...

잔디머리 새끼... 여주양 덕에 산줄 알아라..

'상디?상디..? 내 말 안 들려?'

"여주양.. 저 잔디머리 새끼하고 단 둘이 있지 마세요.."

'에....?'

"하? 뭐야 바람둥이 요리사."

"뭐?!?!?"

저저저저저 저 새끼가 뭐!?!?!'

나보고 뭐라고 한거야?!?!?'

여주양하고 단둘이 응큼한 짓을 한 주제에?!?!?'

'아아... 상디이이! 싸우지마 응?'

"하... 여주양은 또 왜 막아서서 저 잔디머리 새끼를 감싸는거죠?"

'에...?푸흠.. 상디 지금 질투하는 거구나?'

지...질투?

"뭐... 난 둘 사이에 끼어들지 말아주지 둘이 잘 해결하라고"

저 새끼가 은근슬쩍 어딜 도망가!

'상디이이~ 질투했어? ㅋㅋ'

"...저 먼저 방에 들어가죠"

나도 모르게 이런 내가 이상하고 혼란스러워 방으로 들어갔다.

'아...상디..?화 났나?'

---몇분후---

하아... 내가 방금 왜 그런건지...

여주양이 잘못된거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냥 방으로 들어왔는데..

똑똑똑 덜컹

'상...디? 화났어?'

하... 그렇게 쳐다보지 마요... 내가 더 나쁜 사람 되는거 같잖아요..

"아니예요..."

'상디.. 질투했지? 그치?'

"지... 질투... 라뇨! 그런 자식한테..."

'헤헤 아닌데에~? 질투같은데에에~? 상디 질투했구나?헤헤'

"...네..."

결국 인정했다....하...내가 왜 그딴 녀석한테 질투를...

.

.

.

"여주양....?"

'헤헤... 이러면 됐지?'

하... 그렇다고 갑자기 뽀뽀하는건...날 자극시킨다고요...

'상디! 난 상디 여자친구야! 아니 애인이야! 절대로! 절대! 네버! 다른 남자한테 넘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음...걱정안해도 돼... 헤헤'

역시 제가 여자 친구 하나는 잘 뒀나보네요...여주양 고마워요 내 여친이라서..

"그런데...그 자식은 용서 못해요오오오오오!!!!!"

'에에에!???! 사사사...상디이이!'

+결국에는 조로에게 달려가 따지다가 싸움을 내는... 너네 둘 언제까지 싸울 거냐...+

후유... 오늘 참 분량이 많네요!

좀 있다가 3-2화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덧글 안 해주면....

매너없고 센스없는 눈팅족입니다...

이번편도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덧글은 꼭!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게요!!!!^^

***덧글과 공감은 미키마우스에게 에너지의 활력소나 마찬가지!**

덧글과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은 센스있으신 분들!

불법도용을 할 경우에는 법적대응!

원피스 상황문답 3-1화

The end.

04

*원피스 상황문답*3-2화.질투

안녕하세요 미키마우스 입니다!
저번 편 '3-1화. 질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편에서는
에이스 씨가 나온답니다!
다음편부터는 트라팔가 로우도 나올 예정이랍니다!^^
더 좋은 소식은!!!
어제! 방문자 수가 30을 넘어섰다는것! 너무 뿌듯하고 기쁘네요^^
앞으로도 저 미키마우스의 블로그 많이 찾아와주시고
상황문답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댓글도 써주시고 이웃추가도 해주신다면...
더 감사한 마음으로 블로그 글 영역을 넓혀 쓰겠죠?ㅋㅋㅋ
(즉,본심은 댓글과 이웃추가 해달라는 것...〈아니 눈치없게 왜 그 소리를 해! 퍽퍽)
참! 중요한 걸 얘기하지 못했네요!
오늘부터 원피스 팬픽을 쓸 예정입니다.
원피스 팬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게요!
" "은 남캐고 ' '는 여주입니다!
여주 이름은 여주예요 ㅋㅋㅋ

원피스 상황문답

3-2화

-질투-

-에이스-

여주&루피

[루피 대사가 빨간색인것 같은것은 착각...핑크색입니다]

(여주시점)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자인 그. 에이스.

해적으로부터 위협을 받다가 날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며

현재는 연인사이 이다.

'흰수염 해적단'의 동료가 되었고

우연히 어느 한 섬에서 그의 동생 '루피'와 루피의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다.

"어? 루피! 니가 여기는 웬일이냐아?"

"어? 에이스으으으-----!!!!!"

둘이 부둥켜 안고 팔짝팔짝 뛰는 모습이 어쩔..

'..푸흠... 형제라 그런지 닮았네...ㅋㅋ'

"당연하지! 누구동생인데!.... 쿨..."

"당연하지! 누구형인데!.... 쿨..."

허...헐.... 저렇게 자는 것도 유전인가... 이 형제...무서워무서워...

아무튼, 오랜만에 만난 동생이여서 인지

에이스는 한껏 들떠 있었고 그런 그를 어린남자아이를 보는 것처럼 난 엄마미소를 지었다.

불쑥--

'엄마!깜짝이야!'

"얼레? 미안! 이시싯--"

어휴 깜짝이야...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똑같네...

...어...얼레? 왜 그렇게 빨리 쳐다보지?

'어...루피?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

"헤에에에-- 에이스가 좋아한다는 사람이 너구나아아 이시싯--"

'에? 에이스가 말안했을 텐데...?'

"응! 말안했어!"

'그런데 어떻게안거...쵸?'

"응? 봤거든! 이시싯--"

'에? 보다니...?'

보다니? 뭘 봤다는....

서...설마아아!

'서서서서서서서서서설마'

"이시릿--"

안돼안돼! 진짜 아무도 없었을 텐데...

봤을 리가 없잖아...!

'부..분명히 그 골목에서는 아무도 없었는데...'

"이시릿- 봤어! 나미한테 혼나면서 도망다니다가 봤어!"

'어...어디부터...어디까지...?아 진짜...봤어요?진짜로?!?!?!'

난 당황한 나머지 루피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루피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라.....응?어라라라?!?!?"

'엄마야아아아아아아아----!!!!'

우당탕쿵탕쿵탕 우다다다당쿵!

헐

루피가 뒷걸음을 치다가 돌맹이에 걸려 그대로 뒤로 넘어졌고

나도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다.

결국...

엄청난 자세..를...

[엄청난 자세: 루피가 뒤로 넘어져 누워 있는 상태이고

그 위에 여주가 올라타있는 그런...자세...상상되죠?]

(에이스 시점)

"음?뭐야 와플 사러간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안오지?아아 와플 먹고 싶은데에--"

항상 무언가 음식을 먹을 때 옆에서 먹여주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 얼른 그녀가 오길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안오지...? 설마 무슨일 있는건..."

그녀가 걱정되는 마음에 그녀를 찾으러 돌아다녔다.

"하... 어디있는거지?"

아 아까 여주하고 키스 한 골목 한번 가볼까?

거기 있으면 또 한번 해줘야...지.....?

"여주....?"

...

뭐야... 이거...

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거야...

'아....'

"아! 에이스!"

지금 내가 보는게.... 헛것인가....?

'아아! 에이스! 그러니까... 그...그러니까! 어떻게 된거냐면..'

"..."

'에...에이스 화났어?'

"..."

"음... 어...음... 저...에이스? 나,나 먼저 갈게에에에~~~~~!"

"..."

'에이스....?'

"...왜... 루피하고 그러고 있던거야?"

'그러니까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화 난거야? 응?'

"...왜 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하고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던 거야..."

'어...얼레?'

"...왜 내가 아니라..."

'저...에이스? 방금 전의 자세가 니가 아니라 루피라서 이러는 거야?'

왜 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하고...

'푸흠..'

"에?"

'에이스... 그런거 보면 화나야 하는거 아니야? 푸흐흠... 질투났어? 에이스가 아니라 루피라서~?'

지...질투? 방금내가 느낀 게 질투라고?

"질....투?"

'응! 질투! 크크 에이스도 질투할 때가 있구...에이스?'

아~ 질투란게 이런거 구나~..그러면..

"나 질투나게 했으니까 책임져 히힛 나 못참아 히"

'에...에이스!???!'

+이상한 핑계를 대며 책임지라고 하고는 진하게 키스에 돌입하려다가 다시 루피 불쑥 나타나 키스 못한게

아쉬운 늑대 에이스+

-조로-

여주&상디

(여주시점)

'흐아아암~~~~~ 얼라라? 다들 어디갔지?

"오! 여주양! 일어나셨군요~!"

'어? 상디! 조로는? 그리고 다른 애들은?

"얼라라? 여주양 아무것도 기억 안 나시나요?"

에...? 기억이라니?

아..

'아! 기억났다! 분명히 내가... 총 맞고 쓰러...진...응?

"아무튼 깨어나서 다행이에요 여주양!"

'그..그런데 애들은?

"다들 어제 산적들하고 싸우다가 훑아 떨어졌어요"

'그렇구나... 아! 내가 쓰러져서... 조로 많이 놀라지 않았어?

"음..... 그냥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

'아...혹시...'

"여주양이 예상하는 것 대로입니다 잔디머리 새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 산적들 사이로 혼자 싸우러가고..어휴.."

상디는 어제의 조로만 생각해도 머리가 지끈거린다며 머리를 이리저리 돌린다.

'그러면 내가 일어난거 조로한테 알려야지?'

많이 걱정할텐데...

얼른 가봐야...

'으!'

"여여여여여 여주양! 아직 몸 상태가 안좋아요!"

'으음... 조로는? 어디있어?'

"초파하고 같이 섬으로 내려가서 약초따러 갔어요 곧 올거예요"

'그렇구나...'

꼬르륵

아... 배고프다..

'저... 상디 나 배고픈데... 뭐 좀 만들어주면 안될까?'

"당연히 만들어드리죠! 사흘동안이나 누워계셨으니 당연히 배고프겠죠~"

'에에에에엑?!?!?! 사흐으으을!?!?!'

"네에~ 사흘동안 여주양 옆에서 계속 간호한 것도 잔디머리 구요~"

상디는 여유로운 손놀림으로 능숙하게 요리를 하며 조로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다.
물론, 날 너무 걱정해서 탈이 라든지 하루종일 밥도 안 먹을 때도 있었던 바보라든지

하는 약간의 험담도....

"여기있습니다!"

'고마워 상디이~'

"아...."

'음? 왜 그래 상디?'

"여주양은 밥을 먹을 때도...너무 이쁘시네요오오오~!!!!"

'아...아하하하...고마워'

어쩐지... 오늘따라 암전하다 했는데.. 그새 눈이 하트로 변하는 구나...

'오! 맛있다!'

"정말요오오오~?!?"

'그럼~~~!너무 고마워 상디~'

"저야말로요~ 여주양이 무사히 일어나서 다행입니다!"

'헤헤.. 고맙기는... 내가 더 고맙지..'

(조로시점)

"하... 여주... 일어났을까나...초파! 나 먼저 배에 가볼게!"

그녀가 침대에 누워있는지도 벌써 사흘째.

옆에서 간호하고 일어나길 기다린 것도 사흘째.

하아... 도데체 언제 일어나는거냐고..

걱정되 죽겠다...

"어이 미친 요리사! 여주는?!"

뭐야 이 미친 요리사 새끼.

답이 없잖아? 젠장. 내가 꼭 네놈이 있는 부엌으로 가야하나.

덜컹.

"야! 미친 요리...응?"

뭐야... 여주 일어났잖아!

하... 다행이....ㄷ...가 아니라..

저 미친 요리사 바람둥이 꼬부랑 눈썹 새끼가 왜 여주 앞에 앉아서

싱글벙글 웃고 있냐고....

터벅터벅.

"야 미친 요리사."

"어? 잔디머리. 이제 왔냐.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라 내가 여주양 배고프다길래 음식 만들ㅇ..."

이 새끼가...

여주 앞에서 그렇게 능글맞게 웃으면서

같이 대화하지 말라고...

'어? 조..조로?!?!'

"여주 너... 괜찮아? 몸 아직 다 안 나온거 아니야?"

하... 진짜 다행이다..

'응! 좀 괜찮아! 근데... 조로 그 검 내려놓는게...'

"응? 아~ 이 검?"

"야! 미친 바보 잔디머리 새끼! 여주양한테 음식 만들어준 요리사의 목에 칼을 대는거 뭐냐?!?!?"

하? 이 바람둥이 새끼가... 입만 살았네?

'조로오오오~ 왜 그래~ 상디가 나한테 맛있는 것도 해줬단 말야~'

"하..."

스윽-

바람둥이 요리사 새끼...

내가 검을 칼집에 넣어서 네 목숨 살린 거 여주한테 고마워 해라.

"여주 너."

'응? 헤헤'

하... 넌 또 왜 이렇게 순진하게 웃어....

"...ㄴ,너... 저 녀석하고 놀지마..."

'에?'

"하아아~?!?!?! 미친 잔디머리 새끼! 지금 질투하냐?"

"닥.쳐."

"아아~ 그래그래~ 질투하던가~ 날 죽이지도 못하면서~"

저 새끼가... 여유롭게 니가 승자인것처럼 능글맞게 웃으면서 나가는거..기분 더.럽.다.

'..퐁..'

"...음?"

'조로...너...품... 질투야?'

"!"

'질투구나?그치?'

하아... 너 사람 얼굴 빨개진 것도 안 보여? 그만 물어...

'아무튼... 걱정끼쳐서 미안해...조로... 나 때문에 하루종일 밥도 못먹고...간호하고..그러니까..'

쪽

...

!!!

'ㅇ...이건 상!'

"큭.. 여주."

'으..응?'

"상이 너무 약하다? 나 너 간호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젠 니가 나 간호해"

'에...에? 아픈데도 없잖아!'

"여기가 찌릿한데?"

'...뭐어어어?!?! 시..심장이 뭐가 찌릿해!'

"나 약 필요한가봐. 여주. 니가 약이다."

'뭐 원소리야!'

"약이라면 먹어야 하는건데... 나 너 먹고 싶어"

+날 먹는답시고 벽에 가두어 키스하려던 순간 스르르 내게 힘없이 쓰러지듯이 안기는 그.

알고보니 하루종일 간호하느라 밥도 안먹어 힘이 다 빠진것. 조로 너 나 먹는다는 소리 집어치우고 밥이나

먹어.+

원피스 팬픽/소설 에 대한 자세한 것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미키마우스는 이만~! 뽕!

*덧글과 공감은 미키마우스에게 에너지의 활력소나 마찬가지!

덧글과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은 센스있으신 분들!

불법도용을 할 경우에는 법적대응!

원피스 상황문답 3-2화

The end.

05

*원피스상황문답*4-1화.첫만남(회상)

안녕하세요 미키마우스 입니다!
저번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편에는
트라팔가 로우도 나온답니다!
기대되죠?^^<기대는 무슨 빨랑 문답이나 써 짜샤
넵... 얼른 쓸게요..
이번편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은 남캐고 ' '는 여주입니다
여주 이름은 여주에요 ㅋㅋㅋ

원피스 상황문답

4화

-첫만남(회상)-

-루피-

"흐아아암~ 심심해 심심해~! 뭐 재미있는 일 없나~?"

먹을 음식이 부족해져 잠시 어느 섬에 정박해있다.

음식을 구하고 바로 떠나려 했지만 파도가 심해

당분간 섬에 머무르고 있다.

'루피~ 심심해?'

"응! 심심해! 놀아줘~ 이시릿~"

푸흠- 역시 귀엽다니까-

"으아아앙~"

'어? 루피 무슨 소리지?'
"에? 여주야 저~기 꼬마가 울고 있어! 엄마 잃어버렸나봐!"
'그러게? 꼬마야~ 엄마 잃어버린거니?'
"흐아아앙~ 엄마아아~~~~아앙~~~~"
'자자~ 진정하구~ 엄마 오실때까지 누나하고 형하고 같이 놀고 있을 까?헤헤'
"으응!"
'착한 아이네~ 이름이 뭐야?'
"그... 내 이름은... ㅇㅇ!ㅇㅇ이에요!"
'그렇구나~ 누나 이름하고 비슷하네~'
"근데... 누나... 저 형... 무,무서워..."
응? 왜 갑자기 내 뒤로 숨는 거지?
에...
'루피~ 그렇게 무섭게 노려보니까 무서워 하잖아~'
"헛! 여주는 저 꼬마가 신경쓰고! 난 보이지도 않는거야?!"
'에이~ 신경쓰지 않기는~'
쪽
'이렇게 좋은데?헤헤'
"아아...이시잇- 나도 여주 좋아!"
푸흠 이렇게 얼굴 빨개진것도 귀엽단 말야~
"헤~ 근데 꼬마! 너도 그때 여주처럼 길거리에 우는거 똑같네~ 이시잇-"
'에? 무슨 소리야?'
"그때! 우리 첫만남때 말야! 그때...키키키"
'악! 그...그건...'
[회상]
'아... 여,여기가 어디지?!?!'
혼자서 여행간다고 치고는 잠시 벤치에 앉아 쉬다가
잠을 자버렸고 깨어보니 지도와 배낭이 사라져 있었다.
'으아아아~ 이걸 어찌지... 쪽팔리게 길 물어보기도 그렇고...'
길을 물어보려 해도 아무도 없네...
아... 나 어찌지...
내 비상금.. 내 지도.. 내 옷..

망했다!

'흑....흑흑...흑헝...'

혼자 여행하고 다닌지 사흘째. 혼자 여행하고 다니니

외로웠는데 베낭에다가 지도까지 잃어버리니

감정이 폭발쳐 올라 눈물을 터뜨렸다.

나는 어린애처럼 펑펑 울며 누군가가 도움을 주길 기다렸다.

그때.

스윽-

'어...어라라?흠쩍...'

내 눈가에 묻은 눈물을 정성스레 닦아주는 누군가의 손길.

나는 살짝 고개를 들었고

내 눈앞에는 허리를 숙여 내 눈물을 닦아주는 밀집모자를 쓴 한 남자가 보였다.

'흠쩍...누..누구세요..'

"이시잇- 뭐야 길 잃어서 여기서 이렇게 우는 거야?이시잇-"

'그...그게..흠쩍..'

"이름이 뭐야?"

'여...여주...흠쩍..'

"흠~ 여주? 이시잇- 여주! 이제 넌 내 동료다!"

동...료?

갑자기 뜬금없이 동료라는 단어를 내뱉는 그 남자가 못믿어왔지만

갈곳없고 마침 외로웠던 나는 흔쾌히 허락을 했었다.

왠지 그의 눈은 맑고 초롱초롱 하게 나를 바라보는게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다- 하는 신뢰가 생겼었다.

만약,그의 제의를 거절했었다면..

이렇게 웃으며 마주볼수 없었겠지?

+찬찬히 과거를 회상하는 동안 루피는 계속 심심하다고 찡얼거리다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입술을 삐

죽내미는 애기같은 그.+

-로우-

'으으~ 왜 이렇게 높지? 웃샤-! 후~ 역시 당질 많잖아..'

내가 작은건지 책꽂이가 높은건지
책을 꽂으려 아무리 노력해보지만 꽂아지질 않아 애를 쓰고 있었다.

"이리 줘봐라. 호박."

스윽- 착.

역시 191cm라는 우월한 키를 이용해 단번에 책을 꽂는 그.

'우와! 고마워 로우! 로우 짱이다!'

"크흠! 그렇게 쳐다보지 마라 호박."

어어? 뭐야 로우~ 부끄러워 하는거 봐라?히힛

장난치고 싶어지는데에~?

'왜애애~? 부끄러워?'

까아~ 얼굴이 빨개진거 봐! 키키키키

아~ 이거 재밌는ㄷ....

.

.

.

어라라?

'로....로우?'

"니가 먼저 시작했다. 호박."

'에에엑?!?! 저리 비켜!'

"음. 발차기는 꽤 세군."

'늑대같이 갑자기 덮치는거 뭐야!'

"왜. 나도 늑대다. 호박."

'이이익! 아. 그때 생각난다. 그 로우!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첫만남?아- 기억난다. 호박."

'그치그치? 그때도 이렇게 책 꽂을 때였는데..'

[회상]

서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나.

이번에도 '로우'라는 이름이 써 있는 대출증을 가지고 오는 한 남자.

'오늘도 오셨네요? 오늘도 의학책 빌리시려고요?'

"...어"

처음에는 다크써클과 매서운 눈빛때문에 무서워 했지만

매일매일 찾아오는 단골이여서 이제는 친근하게만 느껴진다.

하... 근데 이 많은 책들을 언제 다 정리한담...

오늘도 힘내자!

'웃차! 으으~ 왜이렇게 높은거야~ 어휴..'

하필이면 높은 층의 책꽂이에 있던 책이여서

꽂기 힘들어 하고 있던 그때였다.

스윽.착.

'어...엘레?

고개를 돌아보니 그가 내 손에 있던 책을 자신이 대신 꽂아주고 있었다.

"이런건 나에게 부탁해라."

'아.... 고맙습니다!헤헤'

"...크흠... 이름이...뭐지?"

'아... 여주예요! 그쪽은 로우 씨죠?헤헷'

"내 이름을...."

'항상 오시잖아요~ 항상 오시길래 좀 관심있게 봤어요~'

"... 그렇다면 내가 항상 의학책을 빌리는 것도 알겠군."

'당연하죠! 이름은 트라팔가 로우. 나이는 26세! 의학에 관심이 많으신가봐요~'

"...이봐."

'네?'

"이제부터 넌 내 동료다. 여주."

'...네?'

"내 동료가 되어라. 호.박."

'에?제가 왜 호박....'

"대답이나 해라"

+왜 호박이라고 부르냐고 말하려던 찰나에 yes 라고 대답 먼저 안하면 죽인다는 듯이 쳐다봐서 결국 알겠
다고 한건 비밀.+

후유~ 이번 문답도 열심히 썼는데...

뭔가 망한것 같은 기분... 이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쓰는 미키마우스 이니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글과 공감은 미키마우스에게 에너지의 활력소나 마찬가지!

덧글과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은 센스있으신 분들!

불법도용을 할 경우에는 법적대응!

원피스 상황문답 4-1화

The end.

06

*원피스상황문답*4-2화.첫만남(회상)

01.29
2014

*원피스 상황문답*4-2화.첫만남(회상)

안녕하세요 미키마우스입니다!
아이고오오ㅠㅠ 로우 팬아트 다 그렸는데 이게 어딜 간걸까요 ㅠㅠ
미술학원에 놓고 온 건가 ㅠㅠ
로우 팬아트 찾는대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 게용 ㅠㅠ
이번편도 시작합니다 ㅠㅠ<아주 우울한 기분으로 ㅠㅠ
아 그리고 회상 하는 것 까지 쓰려고 하니깐 너무 글이 많아지길래
여주가 하는 말중에서 중간에 나오게 하기로 했어요
첫만남을 여주의 말 중에서 잘 찾아보세용^^
"은 남캐고 '는 여주입니다!
여주 이름은 여주에요 ㅋㅋㅋ

원피스 상황문답

4-2화

-첫만남(회상)-

-에이스-

'에이스으~!'

"으...음...응? 왜 여주야?흐아암.."

'지금 잠이 와?!? 지금 다른 해적단이 우리한테 시비 걸어오는데

마르코가 너무 화가 나서 싸움이 나버렸다고! 빨랑 일어나!'

"뭐...뭐!? 알았어!"

밥을 먹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버려 있었던 그.

난 그를 깨워 같이 배 갑판 위로 나왔다.

'아.... 에이스...'

"여주야 내 뒤에 있어. 괜찮을 꺼야"

그는 안심 하라는 듯이 예쁘게 웃어 보였고

나는 내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이 거짓말 같았고

벌벌 떨며 에이스 뒤에서 겁먹은 어린아이같이 서있었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

꽤 만만치 않은 해적단이었다.

갑자기 우리 배 갑판으로 올라와서는

우리 흰수염 해적단을 욕하며 시비를 걸다가

마르코가 화가나 먼저 공격을 해버렸고 결국 싸움이 크게 일어난 것이다.

"으가갸갸! 으하하하 네놈이 2번대 대장 에이스냐?크하하"

'에...에이스...'

그는 뒤를 돌아 뒤에서 그의 팔을 꼭 붙잡고 있던 나를 보며

괜찮다는 웃음을 보였다.

그러고는 다시 다른 해적을 향해 얼굴을 돌리는데...

어우...에이스 카리스마가 장난아니다..

"니가 우리를 모욕한 그 더러운 자식이냐?"

"뭐?더러운 자식?! 이 자식 죽여버리겠어!"

그 해적은 높게 뛰어올라 표창을 날렸다.

으아아아 이러다가 맞겠..

화르르륵

"화건"

그가 화건으로 표창을 날려버렸고

그 해적은 잠시 당황한듯 하였다.

당황틈을 타 그놈 화건으로 해적을 날려버렸고

나는 너무 긴장했던 터라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하아....'

"어?여주야?! 괜찮아?왜 그래?"

'아...너무 긴장해서...'

"무서웠어? 괜찮아! 내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너 지켜줄게"

'에이스....'

에이스... 나 감동했어...

나는 그의 믿음직스럽고 남자다운 모습에 또 한번 반했고

곧 싸움이 끝이 났고 승리는 우리 해적단이 거두어갔다.

'...어...?에이스! 다쳤잖아!'

나는 우연히 그의 오른쪽 볼에 살짝 스쳐베여 다친 상처를 보게되었다.

으으 쓰라리겠다

"어? 아 괜찮아~"

'괜찮기는! 기다려 내가 약발라줄게!'

스윽-스윽-

'됐다! 헤헤'

"히힛 여주가 이렇게 해주니까 잡아먹고 싶다"

'뿤뿤뿤뿤?!?!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하여튼 은근 늑대라니까...

아... 그때도..

'에이스 우리 첫만남 때도 이랬는데... 기억나?'

"응?음...아! 기억나! 그때도 이랬는데"

'그때 다른 해적단 해적들한테 막 위협하고 막 벌벌 떨고 있을때

갑자기 나한테 칼을 내리치려고 할때 에이스가 짹! 하고 나타나서 막고는

화권으로 무찔러줬잖아!'

내가 온몸으로 흉내내며 신나게 얘기를 하자

그런 나를 귀엽다는 듯이 쳐다보는 그.

"그래서 그때 나 멋졌어?"

'응! 엄청! 그러고는 나한테 막 멋있게 "너 내 동료가 되지 않을래? 항상 나타나서 귀해줄수 있는데"

라고 말했잖아! 짱이었어!'

"아...흠흠! 그..그랬나?히힛"

'에?에이스 얼굴 빨게졌다!'

"에?아,아니야! 안빨개졌어! 그니까..."

'에이~ 부끄러워서 그렇지?'

"...음... 아니! 너 잡아먹고 싶어져서"

'뭐뭐?!?!'

"이젠 안 참아 히힛 생명의 은인인데 이런것 까진 은혜로 갚아야지?"

+첫만남을 회상하며 서로 수다떠는거에서 키스로 급전개시키는 은근 늑대 에이스+

-조로-

꼬르르륵-

'으음... 배고파... 아... 왜 또 길을 잃었지...'

섬에 정박하여 잠시 머무르고 있는데

내가 섬 구경 좀 하고 오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결국 길을 잃어버렸다.

'하.... 전보 벌레도 없고... 아아아 어찌지?'

어디로 가야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고

갖고 있는 물건이라고는 그가 준 황금빛 하트 목걸이 뿐.

내가 어쩔줄 몰라하는 동안 점점 날이 저물어 갔다.

'헉! 벌써 밤인데.... 아이씨... 하필이면 왜 숲에 들어왔지...으으...무서워..'

으아아아 이 숲에 뭐 괴물이나 늑대나 그런거 있는거 아니겠지?

사박-사박-

헉! 누...누가... 여기로 오고 있어!...으아... 어찌지?어찌지?

탁-

'끼아아아아아아아아악!!!'

나는 내 어깨에 무언가 올려지는 느낌이 들어 나도 모르게 팔을 봉봉 돌려대었고

내 팔에 맞은건지 퍽 소리가 났다.

퍽-

"악!"

'어...어라라? 조로?!?!'

"으아아... 왜 갑자기 때리는 거야..."

'아....'

나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도감에 눈물을 터뜨려버렸다.

'호아아아앙'

"어어?왜,왜 울어? 왜...왜그래? 무슨일 있었어!??"

'으아앙..흐읍...흑...길...흑...잃어버려서...흐읍...무서웠...다고...흑..흐앙...'

"하아-? 괜찮아 같이 돌아가자"

'응....흐읍....'

그와 같이 돌아간답시고 걷긴 했다만... 오히려 숲속으로 더 깊숙히 들어가는 것 같았다.

'조...조로... 우리 제대로 가는 거 맞아?'

"아.....마...맞을꺼야! 맞을 꺼라고!"

아.... 조로 길치였지...

'에효 그냥 반대쪽으로 가자 조로'

"어...어?아니 여기로 가면 되니.."

그의 말에 나는 그를 한번 째릿-하고 째려보며

네 말 믿고 가다간 또 길 잃어버리겠다 하는 눈빛을 보내자

그는 입을 꼭 다물고는 내 말에 순순히 따랐다.

같이 터벅터벅 걷다보니 왠지 어색하고 긴장되는 분위기.

난 이 분위기를 깨보려 곰곰히 생각하다가 우리 둘의 첫만남이 생각났다.

'아! 조로! 우리 첫만남때도 이랬는데... 그치?'

"아아 기억나"

'그때는 우리둘이 우연히 숲에서 만났잖아. 그리고 내가 길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조로가 같이 가자고 하고 같이 갔는데 오히려 길 또 잃어버리고...크크'

"그...그건! 그때 나도... 그.... 길 잃어버린...."

'에에엑?!? 진짜!?!? 악 크크크'

"웃지마!"

'아악 웃겨 죽겠다! 크크크 조로는 길치래요~'

"노...놀리지마!"

'엥? 놀린건데? 조로는~ 길치래요~ 조로는....어...어라라?'

"확 늑대로 변하기 전에! 놀릴 거야 안 놀릴 거야"

'아...안놀릴게...'

+말 한번 잘못 하다가는 그에게 덮칠 것 같은... 조로 역시 난 무서워...+

오늘은 여기서 끝내려 구용!
상디가 없다구용? 다 이유가 있어요!
다음편에서 여주가 상디와의 첫만남때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막으려고 여기다 올리지 않았답니다!
다음편은 '그는 늑대' 라는 편이에용!
담주 월요일에 올릴테니 그점 꼭 기억해주시고요!
이번편 읽으셨다면 댓글은 써주시고 가셔야죠?^.^<왠지 이 미소가 살인적인 미소로 보이는군..
*댓글과 공감은 미키마우스에게 에너지의 활력소나 마찬가지!
댓글과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은 센스있으신 분들!
불법도용을 할 경우에는 법적대응!

원피스 상황문답 4-2화

The end.

07

*원피스상황문답*5화. 그는 늑대

안녕하세요 미키마우스 입니다!

지금 저는 아침부터 별떡 일어나 이때다 하고 얼른 컴퓨터를...ㅋㅋ

ㅠㅠ 진짜 어제 글 못올려서 죄송해요 ㅠㅠ

오늘은 시간이 좀 남아돌아서 올릴 수 있게 됐어요!

로우 팬아트하고 루피 팬아트는 담주 화요일에 올리도록 할게용!^^

항상 제 블로그 봐주시는 캔디프린세스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용 ㅠㅠ

댓글을 써주시는 분이 거의 캔디프린세스님이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동먹고 감사할 뿐이네용 ㅠㅠ

스릉해용~~~♥♥♥하트뽕뽕뽕♥

" "은 남캐고 ' '는 여주입니다!

여주 이름은 여주에요 ㅋㅋㅋ

원피스 상황문답

5화

-그는 늑대-

[작가의 시점]

[그가 여주를 호시탐탐 덮칠 기회를 노리며 계속 은근슬쩍 들러붙네요.
하지만, 하나도 눈치 채지 못한 여주는 헤맸고 순순하게 웃으며 그를 부릅니다.]

-루피-

그가 계속 여주의 곁을 맴돌며 덮칠 기회를 노리는데요. 하지만, 여주는
그런 그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시키는 루피의 말 하나하나에 일일이 대꾸해주며

헤맑게 웃네요. 그런 여주의 예쁜 미소에 그는 얼굴이 새빨게지고는 저멀리 도망가버리네요.

+여주의 그 순수한 미소에 결국 그런 늑대같은 마음이 다 녹아들은 여친바보.+

-로우-

"하아... 미치겠군" 덮칠 기회를 노리지만 그 틈이 보이질 않자 그는 계속 여주에게 말을 겁니다. 여주가 뒤돌아보며 헤맑게 웃자 그는 심장이 쿵광거리며 모자를 푹 눌러쓰네요.

"자, 이제 내가 니 심장을 뛰게 할 차례지?"

+끝까지 기회를 노리며 서서히 덮쳐오는 하트해적단의 선장 로우.+

-에이스-

그는 덮칠 기회가 보이질 않아 미칠 지경이네요. "으아아아아~"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는 결국 머리를 잡고서 소리를 지르네요. 결국 포기하려던 그가 여주의 순수한 미소를 보고는 그런 변태같은 생각을 한 자기에게 벌을 줘야한다며 자기머리를 마구 때리네요.

+여주의 순수함에 결국 다 녹아든 여친바보 2 탄생+

-상디-

"하... 진짜... 레이디 어쩔거예요..." 여주의 미소에 또 다시 반해버린 그는 평소 굴리지 않던 머리를 굴리며 덮칠 기회를 생각해내는데요. 그가 능글맞게 웃으며 여주에게 다가갑니다.

"여주양~? 우리 첫만남때 기억나시나요~?" '응? 첫만남? 음... 어! 기억나! 그때 상디가 나 대신에 레스토랑에서 돈내주고 내가 고맙다고 하니깐 상디가....' 첫만남때의 얘기를 술술 말하다가 금새 새빨게진 여주의 얼굴. "그다음에는요~?" 그가 점점 몸을 밀착해오며 여주에게 다가가네요.

여주는 어쩔줄 몰라하며 눈을 이리저리 굴립니다. 그가 여주의 귓가에 나지막하게 말하네요.

"그때 저 덮치려 했는데... 여주양의 미소에 결국 포기했다고...말이죠?" '그...그니까...그..'

"지금 딱 그 상태인데 이번에는 포기못해요"

+굴리지 않는 머리까지 굴려 덮치기 성공해 대만족 하는 응큼한 요리사 상디+

-조로-

"...." 여주의 미소에 살짝 붉어진 그의 두 볼. 여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에게 물어옵니다.
'에? 조로! 얼굴이 붉어졌...!?!?!?'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가 이때다 하고 자신의 품에 끌어당기며
진하게 키스에 돌입하네요. 입을 떼고는 그가 하는말.

"이제 덮쳐도 괜찮지?"

+정말 박력박력/// 하신 우리의 검사 느낌. 조로 느낌.///+

[우연히 배의 값판에서 좁게된 영화티켓 두자. 여주는 신이 나서 그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갑니다.
영화를 보던 도중에 남자가 여자를 벽으로 몰아붙이고 진하게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여주의 손을 잡고 같이 보던 그의 손이 힘이 들어가네요.]

-루피-

'에... 루피?' 여주는 조심스레 그를 부릅니다. 키스신 장면에 여주도 놀라긴 했지만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그가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그가 침을 꿀꺽 하고 삼키는 소리가 들리네요.

여주는 뭔가가 이상해 다시한번 그를 부릅니다. '루피? 왜그래? 영화가 재미없어?'

"아니! 재밌어!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 부분 보고 공부해야지!이시릿~"

+혈 이자식... 벽에 몰아붙이는 부분부터 눈빛이 반짝거려.. 벽에서 최대한 떨어져야 겠어..+

-로우-

그의 손에 힘이들어가는 걸 의식하지 못한 여주가 신나게 수다를 떠네요.

'우와 저남자 기술좋네 박력있다! 그치 로우?' 자신의 손에 힘이 들어간 걸 눈치채지 못한
당신의 모습에 살짝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당신의 말에 극심히 질투가 났는지 얼굴을 찡그리고는

자기가 하는 기술이 더 좋냐 저 자식이 하는 기술이 더 좋냐며 본의 아닌 폭로를 하고는

자기도 부끄러운지 얼굴을 붉히다가 내심 대답을 듣고 싶어하네요.

+폭풍질투를 하면서도 끝까지 대답은 들어야 한다는 그+

-에이스-

'음?에이스 손에 힘이 들어간...!' "어어?어?! 아아! 아,아무것도 아냐! 크흠!"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급하게 말을 더듬는 그가 귀여워 놀려주고 싶은 여주.

'에이스~~~? 손에 힘은 왜 들어가실 까~~?' 그의 얼굴이 새빨게지네요. 여주는
그런 그의 반응이 재미있어 한번더 놀려주기 위해 입을 열다가...
쪽. "자꾸 그러면 잡아먹고 싶잖아 흐힃"
+입꼬리는 순수하게 웃으면서도 입은 늑대같은 말을 하는... 너너너너! 위험해!+

-상디-

그의 손에 힘이들어가는 것을 느낀 여주. 여주는 자기가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고
말하면 분명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기에 조용히 말 하지 않는데요.
영화가 끝나자 마자 앉고있던 여주에게 달려들어 진하게 키스하는 그.
역시나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네요.
+여기 엄청 응큼한 늑대 추가요+

-조로-

여주는 그의 손에 힘이들어가자 뭐지?하고 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유독 집중해서 보는데요.
위험하다는 것을 느낀 여주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다는 핑계로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더욱 손에 힘을 주며 가지못하게 잡고는 말하네요.
"지금 니가 너 스스로 함정을 파고 빠지는 셈인데? 니가 같거든 나도 같거야"
+역시 그를 이길 수는 없군요. 가던 안가던 잡아먹을 것 같은 눈빛의 그입니다+

으히히힃

이번 편도 잘 보셨는지요?
왠지 제가 변태가 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만...
여러 상황문답을 보며 머리를 쥐어짜며 낸 아이디어 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가는 것도 좋.지만!
덧글은 써주셔야종?으히히힃^_^ < 살인적인 미소를 띤 저입니다 흐흐흐 덧글 써주고 가면
안 잡아 먹지~

*덧글과 공감은 미키마우스에게 에너지의 활력소나 마찬가지!
덧글과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은 센스있으신 분들!
불법도용을 할 경우에는 법적대응!

원피스 상황문답 4-2화
The end.

08

*원피스상황문답*6-1화. 데이트

안녕하세요 미키마우스 입니다!
자.... 솔로분들..... 옆구리 시려우실 거예요...
데이트.... 그노무 커플들이 한다는 데이트...
ππππππ 나 벌써 서러워요 ππππ<됐고 상문이나 쓰라고 바보마우스야 -.-
" "은 남캐고 ' '는 여주입니다
여주 이름은 여주예요 ㅋㅋㅋ

원피스 상황문답

6-1화

-데이트-

[작가의 시점]

[놀이공원에서의 신나고 달달한 그와의 데이트]

-루피-

"우와아아! 여주! 나 지금 너무 신나! 이시잇~"

역시나 어린애같은 그의 모습에 여주는 살짝 푹하고 엄마미소를 지으며 웃네요.

항상 그런모습의 그이지만 그럴때만 귀엽기만 합니다.

'응 나도 신나!헤헤'

"오오! 여주야! 저거 재밌겠다! 우리 저거 타자~"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롤러코스터가 보이네요. 여주도 노는걸 좋아하지만 롤러코스터라는

공포의 놀이기구(?)는 손사래를 치며 기겁을 하는 타입입니다.

'아.....으어.....저...저거?'

"응! 나 저거 타고싶어! 되게 재밌겠다!여주하고 같이 타면 더 재밌을거야!이시릿~"
여주하고 같이 타면 재밌을거라는 그의 부담되는 순수한 말때문에 결국 여주는 하는 수 없이 롤러코스터
에 타는데요.

'까아아아아아악!!!!!!!!!!'

결국 공포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이 터뜨리고 말았네요.

'으아앙~ 까아아아! 훌쩍...흐헝....무서워ㅠㅠㅠㅠ'

"에....?여,여주! 왜 그래! 무서워?응?"

'흐아아앙ㅠㅠㅠㅠ'

"울지마! 내가 있잖아! 응?"

그가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고는 계속 당신이 무서워하자 안되겠는지
고무고무 능력을 써 당신을 안고 타던 도중에 내려버립니다.

'흐으윽... 흑...훌쩍...'

"많이 무서웠어? 괜찮아 무슨일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지켜줄게 응?괜찮아"

당신을 꼭 끌어안아주며 토닥여주며 달래는 그.

+당신의 그의 나름 어른스러운 면에 또 한번 반하고 말았네요!!!+

[딱딱한 분위기에서 피어오르는 사랑. 도서관 데이트]

-로우-

당신은 책을 좋아하는 그를 생각해 도서관으로 데이트가자고 합니다.

그는 그런 당신이 사랑스러운지 마냥 당신을 쳐다보는데요.

그는 책을 볼 생각이 싹 사라진건지 도서관에서도 계속 당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그의 시선이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마냥 책을 열심히 읽고만 있네요.

당신이 읽고있는건 어린애들만 읽을 것 같은 그림이 많은 동화책.

오랜만에 읽는 책인지라 당신이 책에 푹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자 그는 아무리 사랑스러운 눈빛을 뿜어내도 자신을 봐주지 않자

유치하게 책에게 까지 질투심이 생기네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신이 너무 유치하게 구는거 같아 심란했지만

항상 자기가 책을 읽을때 기다려주던 당신의 마음을 어느정도 깨닫게 됩니다.

스윽- 획.

'에? 뭐야 로우! 갑자기 책을 가져가면 어떻게!

"싯-"

그는 그의 검지손가락으로 당신의 입을 막네요.

그러고는 당신의 귓가에 나지막히 저음으로 말을 합니다.

"이제 너의 마음을 어느정도 알겠군. 앞으로 책보다 너를 더 보도록 하지. 여주여-"

+핑! 터져버린 당신의 심장! 심장이 바운스바운스!/+

[연인들의 사랑 분위기가 제법 나는 공원에서의 데이트]

-에이스-

당신은 그와 함께 다정하게 손을 잡고 공원에서 산책을 합니다.

주변에서도 많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수 있는데요.

당신과 그는 누가 보던 말던 함께 다정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계속 걷다보니 지친 다리.

그와 당신은 잠깐 벤치에 앉아 쉬기로 합니다.

당신과 그가 앉은 벤치 바로 옆에 또다른 연인들이 있는데요.

어이쿠. 한 연인 둘이 사랑이 묻어나는 키스를 하고 있네요.

당신은 그도 그걸 보았기에 분명 그도 해줄거라 기대하고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그가 얼굴이 새빨게져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뭔가 이상한 상상이라도 한듯

갈수록 더 얼굴이 붉어집니다.

'엥?... 에이스...'

당신은 조심스레 그를 건들여 보며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자 그가 화들짝 놀라며 펄쩍 뛰네요.

'에,에이스?...푸흠- 그렇게 부끄러웠어?크큭'

당신은 그를 놀려주고 싶은 마음에 계속 놀려먹네요.

"에에? 아,아니야! 부끄럽긴 뭐가!"

'흐음~ 얼굴이 새빨간데~? 뭐 이상한 상상이라도 한건 아니고?

"(뜨끔) 그,그럴리가! 그럴리 절대 없다고!"

그의 반응이 귀엽자 당신은 한번도 놀리기 위해 도망다니는 그를 졸졸 쫓아다닙니다.

'이상한 상상이라도 한ㄱ.....에이스?'

갑자기 그가 뒤돌아서서 당신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밀착하는데요.

그리고 그가 하는말.

'오늘은 여주 쉽게 잠 못자겠는데? 이 장난꾸러기 여주씨. 벌 좀 받아야죠?'

+이런이런. 오늘밤 한번 그에게 크게 혼날 것 같네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조금 어른스러운 그런 데이트...?]

-상디-

역시 그의 이미지와 맞는 데이트 장소입니다.

좀 고급스러우면서 어른스러운 데이트 코스때문에 당신의 그에 맞게

더 성숙한 옷차림으로 약속장소에 나옵니다.

'상디! 좀 늦었지? 당신은 담배를 피고 있던 그의 팔을 잡고서 얼굴을

빠꼼 내밀며 당신이 왔음을 당신의 이쁜미소와 함께 알려줍니다.

"하핫 여주양!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오셔서 저도 모르게 뉘칠 뻔했다구요?하하"

'에엣! 으웃..// 그,그런 말을 그렇게 태연하게 말하면 내가 부끄럽ㄸ....'

당신이 그의 능글맞은 말투에 얼굴을 붉히며 발끈하자

그가 한손으로 당신의 뒷목을 부드럽게 감싸고는 다른 한손으로는 들고있던 담배를 길바닥에

버리고 당신의 왼쪽뺨을 감싸며 기슭키스를 해줍니다.

당신은 놀라 두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신의 검은 동공이 떨리다가 이내

눈웃음을 짓고는 그를 받아줍니다.

한참의 입맞춤끝에 그가 입을 떼고는 싱긋 웃으며 말합니다.

"그런 옷 입으시면 아무리 레이디퍼스트인 저라고 해도 못참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있던 코트를 당신에게 걸쳐줍니다.

그렇게 그와 함께 레스토랑까지 같이 걸어갑니다.

당신은 일부러 그를 위해 안입던 옷까지 입고온건데 그가 가려줘버리니

살짝 섭섭해져웁니다. 당신은 오늘만큼 그에게 도발하기로 마음을 먹었기에 단숨에

그의 코트를 벗어버립니다. 그러자 그가 놀란표정을 짓고는 당황합니다.

코트를 벗자 흰히 들어나는 당신의 쇄골과 허리선.

그의 반응에 당신은 속으로 살짝 아싸 하고 외칩니다.

그의 놀란표정이 이내 퍼치더니 다시 능글맞은 표정으로 봐줍니다.

그러고는 그가 당신에게 다가가 당신의 이마에 쪽-하고 키스를 해주고는 그가 하는말.

"레이디, 레이디의 마음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당신을 위해 당신에게 맞춰가줄게요"

+당신의 마음을 알아채고는 당신에 맞춰 행동해주는 매너남 상디 //+

[근육광 운동광 인 그 덕분에 하게된 운동 데이트(?)ㅋㅋ]

-조로-

그와의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여서인지 당신은 설렘 가득하였지만

데이트 장소는 근육광인 그가 추천한 어떤 헬스장...

당신은 달달하고 로맨틱한 데이트를 꿈꿔오며

그가 시간날 날만을 기다려왔건만... 데이트장소 가고 싶은데를 물어본 당신은 후회하네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눈을 반짝이며 대답한것 처음이라

당신은 그의 간절한 눈빛을 이기지 못해 허락해버렸다죠.

그래도 당신은 오랜만인 만큼 즐기기로 하고 헬스장으로 향합니다.

그러자 당신의 눈에 보인건 헬스장 문앞에서 기다리다 벽에서 기대있는 채로 잠들어있네요.

근육광인 그러면 분명 먼저 운동하고 있을거라 생각했건만

당신을 기다리게 당신은 흐뭇하고 고마운 마음에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에 짹게 뽀뽀하고 떨어지려던 찰나..

그가 눈을 번쩍 뜨고는 단숨에 당신을 벽안에 가둡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당신은 헉- 하고 숨을 크게 들이킵니다.

당신은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보니 그가 짐어삼킬것 같은 늑대같은 눈빛으로 아직 줄음이 덜꺼건지

살짝 풀린 눈으로 당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매혹적인 눈빛에 당신의 얼굴은 새빨게지고 그를 밀어내기위해 그의 가슴팍을 당신의

작은손으로 밀어내려애를 씁니다. '조,조로! 뭐해...!! 우리 운동해야..지....//'

당신의 반응이 귀여웠던건지 피식- 웃음을 흘리고는 당신을 짹 안아주며 그가 말합니다

"사랑해 여주."

그러고는 파바박 떨어지더니 자신의 붉어진 얼굴을 손으로 가린채 후다닥 헬스장에 들어가네요

+그 역시 자기가 그런말을 한게 부끄러운지 얼굴을 붉히지만 당신이 뽀뽀해준 자신의 입을

계속 매만지며 흐뭇한 표정을 짓네요^^+

어후 우리 원피스 남캐느님들은 어찌이리 쓰는 저까지

설레게 할까요/// 데이트라닛! 이런 분들과 데이트라니이잇!

ㅠㅠㅠㅠㅠㅠ 상상도 못하겠네요 ㅠㅠㅠㅠ

여주가 부러워 ㅠㅠㅠㅠ 내가 쓰는 글인데 내가 더 여주한테 부러워 미치겠어 ㅠㅠ

솔로천국이요 ㅠㅠㅠ 커플지옥이옵니다 ㅠㅠㅠ 영영영 서러워 ㅠㅠ

*덧글과 공감은 미키마우스에게 에너지의 활력소나 마찬가지!

덧글과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은 센스있으신 분들!

*불법도용을 할 경우에는 법적대응!

원피스 상황문답 6-1화

The end.

09

*원피스 상황문답*6-2화.데이트

안녕하세요 미키마우스입니다!
저번편에 이어서 6-2화를 올리네요^^
흐어엉 ㅋㅋ 요새 바빠 미치겠네요 분명히 봄방학맞는데 뭐이리 바쁜지 ㅋㅋ
요새 아이디어는 흘러넘치는데 ㅋㅋㅋㅋ
쓸 시간은 없고 ㅋㅋㅋㅋ 그 점은 양해부탁드리고 이번 문답도 흐뭇한(?)표정을 지으며
읽어주세요용! 헤헤 ^_^
" "은 남캐고 ' '는 여주입니다!
여주 이름은 여주에요 ㅋㅋㅋ

원피스 상황문답

6-2화

-데이트-

[작가의 시점]

[데이트 하던 도중에 그는 잠시 화장실을 가기위해 자리를 뜨는데요.
그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꽤 잘 생긴 한 남자가 대쉬를 걸어옵니다.
대쉬를 걸어오던 남자는 이내 당신에게 애정행각을 취하려고 까지 하네요.
그가 그순간에 화장실에서 돌아오는데요. 그모습을 그가 보고합니다.]

대쉬하는 남자 대사: (-)

-루피-

(이봐 거기 예쁜 아가씨?)

한남자가 하필 그가 화장실에 가있을 때 당신에게 대쉬를 걸어옵니다.

당신은 그가 이 모습을 보면 분명히 어떻게 할지 알기 때문에

대쉬하는 남자를 떼어놓으려 애를 씁니다.

'일행 있어요. 더 볼일 없으시면 가주세요'

(에이~ 아가씨도 이런거 좋아하잖아~ 같이 어디 카페라도 갈까요?)

'일행 있다니깐요!!!'

(어허! 아가씨 내송 떠는거 다 아니깐~ 자! 어디 카페라도 가서 얘기해요~)

대쉬하는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러붙고는

이내 당신을 손목을 붙잡고는 힘으로 이끕니다.

'뭐하는 짓이에요! 이거 놓으시라니까요!'

(나참, 내송도 적당히 떨지? 흐음- 얼굴도 반반하고 몸매도 반반하네?응? 너 마음에 든다 ㅋㅋ)

당신은 아무도 없는 놀이공원 한 모퉁이 구석에서 순결을 잃게될 위험을 감지하고는

빠져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 순간...

"어이. 지금 여주한테 뭐하는 짓이야?"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당신은 그의 목소리라는 걸 감지하고는 뒤를 돌아봅니다.

'루...루피.....' (하? 뭐야 넌?) 대쉬하던 남자가 피식- 하고 비웃고 방심하던 그때.

퍽퍽- 퍼퍼퍽- (끄아아악!) 그는 고무고무능력을 사용해 남자를 반죽을 정도로 때려눕혀버립니다.

그리곤 그는 손을 탈탈 털며 놀러쓴 밀집모자 덕에 그의 표정은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는 살기를 내뿜으며 쓰러진 남자를 내려다봅니다.

'어....루피...?' 당신의 말한마디에 그는 어두운 표정에서 금세 해맑은 표정으로 바뀝니다.

"이시시- 여주. 어디 다친데는 없지?" '응! 난 괜찮아... 근데 루피... 많이..화났어?'

당신은 아까의 잔뜩 화난 그의 모습에 살짝 겁먹은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잠깐 얼굴을 굳히더니 이내 밝게 웃으며 당신을 짝 껴안아주네요.

"응! 엄~청 화났었는데~ 여주 어디 다친데 없는거 보고 마음 놓였...어..."

말끝부분을 흐리며 작게 몸을 떠는 그. 그의 떨림이 느낀 당신은 자신의 형을 잃은 과거가

있었기에 안쓰러운 마음에 당신도 그를 꼭 안아줍니다.

'괜찮아. 루피. 루피가 항상 이렇게 달려와줘서 이렇게 멀쩡한걸? 그리고 난 절대 루피 안떠나.'

+당신의 말에 급격히 감동감동 열매를 먹으시고는 앞으로는 이런일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참으로 오랜만에 아려아려한 루피의 상문///+

-로우-

'히익'

대쉬하던 남자는 다름아닌 당신보다 키도 훨씬 크고 덩치도 크고

험상하게 생긴 얼굴이 당신이 딱 무서워할 만한 이미지입니다.

당신은 무서워 어버버-한 상태에 대쉬하던 남자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잠깐 같이 어디좀가자니까?)

'저,저저전! 그... 사,사람 기다리고 있었..아니 있는... 으아아아 나 뭐래는 거야..'

(이봐이봐. 일행 기다릴 시간에 나하고 같이 시간 보내는 건 어때?)

'흐이이익!!'

당신은 두려움에 벌벌 떨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것같은 표정입니다.

하필이면 그가 화장실에 가있고 주위 사람들은 자신들도 휘말려들긴 싫다는 듯이

애써 무시하며 책만 읽고 있네요.

두려움에 휩싸인 당신은 로우를 급하게 부릅니다.

'로,로우우우우!!! 로우!!! 흐어아아앙 나좀 살려줘어어 흐허엉'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만 당신.

무슨 순간이동을 한건지 당신은 눈앞에는 익숙한 그의 뒷태가 보입니다.

'로우...?홀쩍' 당신은 목소리에 살짝 고개를 뒤로 돌려 보는데.

"괜찮냐. 호박." '흐음..로우...' (하?뭐야 이 자식은? 이봐 지금 나한테 싸움거는거야?)

피식피식 비웃으며 그를 내려다보며 기분나쁘게 웃는 남자.

그의 이마에는 사거리 마크가 생기며 금방이라도 죽일듯이 남자를 쳐다봅니다.

그의 눈빛에 남자가 살짝 놀라고 쫓은듯 당황하는데요.

그틈을 타 그는 그의 능력을 펼칩니다. "ROOM-" (...?)

그러고는 칼을 꺼내 사각사각 잘게 남자를 잘라버리고는 뒤죽박죽으로 몸 부위와 부위를 붙입니다.

(끄아아악! 이게 뭐야!!)

"내 호박을 건들인 죄다. 재미있는 해부가 되겠군"

+당신이 급히 그를 말리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하자 그는 잔뜩난 화를 꺾꺾 참으며

속으로 참을 인을 무한번 반복하는 로우.+

-에이스-

(에이~ 이 오빠가 즐겁게 해준다니까?)

느끼한 말투에 느끼한 표정 그리고 느끼한 스킨십.
당신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남자를 떼어놓으려 애를 씁니다.
그럴수록 당신에게 더욱 달라붙어 스킨십을 시도하는 남자.
당신은 남자가 이럴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싫다니까요?! 제발 좀 저리로..'

(어어? 튕기는 거야?에이~ 그러지 말고 오빠랑...끄악!! 이게 뭐야! 으아 뜨거!)

갑자기 날라온 불꽃. 그 불꽃은 당신에게 대쉬하던 남자에게 날아가
남자의 옷에 달라붙고는 더큰 불을 일으킵니다.

(으아 뜨뜨뜨거!!)

남자는 그렇게 허둥지둥 어디론가를 달려가버립니다.

당신은 잠깐 멍-하니 있다가 이내 정신차리고는 불꽃이 날라갔던 곳을 고개를 돌려 봅니다.

다름아닌 그가 잔뜩 화가 나는 대도 꺾꺾 참는 표정으로 당신이 있는곳을 응시하고 있네요.

"이런이런. 조절을 한다는게 이렇게 되버렸네?" 분명 입은 웃고 있지만 눈빛은 살기를 내뿜고 있네요.

'아...에이스 었..어..?' "아아 왜 거머리가 너한테 달라붙었길래 없애주려고 했던건데 하하"

혹여나 자신의 화난 표정을 보고 겁을 먹을가 참으며 애써 다정한 미소를 지어주지만...

에이스.. 너에게 검은 오오라가 보이는건 내 착각인가?

+하루종일 검은 오오라를 뒤집어쓴채 자꾸만 당신에게 대쉬하던 남자가 떠오르는지

계속 인상이 찌푸리다가 당신이 그를 쳐다볼때는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바뀌는... 너 이자식 무서워+

오오...하느님...

지금 제가 슨글을 보고 제가 감탄해도 되겠나요?...

ππππππππ 나 어떻게 ππππππππππ

이 남캐남신느님들에게 훌딱 빠져들고 말았어요 πππππ

>조로와 상디편은 '6-3화. 데이트'. 다음편에 쓸게용!@.@ 아이디어 나질 않아서..πππ

*덧글과 공감은 미키마우스에게 에너지의 활력소나 마찬가지로!

덧글과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은 센스있으신 분들!*

불법도용을 할 경우에는 법적대응!

원피스 상황문답 6-2화

The end.

10

*원피스상황문답*6-3화.데이트

안녕하세요 미키마우스 입니다!

드디어! 드디어어어!! 상황문답을 올리는군요 ππ 정말정말 오랜만입니당 ππ
정말 블로그질 덕질 하고싶어서 손이 근질근질 했어요ππ

하필 제 친구자식이 절 추천해가지고는 제가 부반장이 되버렸다죠..
하하^^ 되고 나니 새학기에 부반장이 무슨 할일이 있다고 아주 바빠죽겠더라고요^^
친구자식^^ 하하하 그 자식 아주 저에게 얻어맞았다죠^^

잡소리는 집어치우고!

제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문답을 쓰겠습니다!

ππππππππππ 정말 이 얼마나 기쁘는지 ππππππππππ <상황문답이나 써
넵 쓸게용

" "은 남캐고 ' '는 여주입니다

여주 이름은 여주예요 ㅋㅋㅋ

원피스 상황문답

6-3화

-데이트-

[작가의 시점]

[데이트 하던 도중에 그는 잠시 화장실을 가기위해 자리를 뜨는데요.
그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꽤 잘 생긴 한 남자가 데쉬를 걸어옵니다.
데쉬를 걸어오던 남자는 이내 당신에게 애정행각을 취하려고 까지 하네요.
그가 그순간에 화장실에서 돌아오는데요. 그모습을 그가 보고합니다.]

대쉬하는 남자 대사: (-)

-상디-

(이봐요 아가씨?)

'음? 누가 날 불렀나?'

당신은 누군가 당신을 부른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지만
다른사람을 부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생각없이 그를 기다립니다.

톡톡

누군가의 손이 당신의 어깨를 건드네요.

'음?'

(하하 아가씨 부른건데 못들어셨나봐요?)

'아.... 무슨일로 절 부르신건..지?'

(보아하니 혼자이신것 같은데.. 제가 좀 아가씨 상대해드릴까요?)

'에엥? 그럴 실 필요 없는...!'

당신은 살짝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다가 극구 사양하지만
한 남자가 당신의 들어난 어깨에 어깨동무하듯 감싸 손을 얹으네요.

(자자 저쪽가서 같이 천천히 대화하자구요~)

왠지 능글맞은게 그와 닮은 것 같아 익숙함이 느껴진 당신은
잠깐동안 남자를 상대하기로 합니다.

.
.
.

(하하하! 그래서 그때 제가 ..)

시간이 지나도 지나도 그가 오지않자

대쉬하는 남자와의 대화도 점점 길어지고 남자의 은근슬쩍 스킨쉽이 점점 강도가 올라갑니다.

남자의 스킨쉽에 불편함을 느끼던 당신은 안되겠다 싶어 자리를 뜨기로 합니다.

'저... 일행이 있어서요. 이만 실례할게요^^'

(어라?벌써요? 제 얘기 더 듣고 가시죠~ 이 부분부터가 하이라이트 인데~)

남자는 일어스려던 당신의 손목을 붙잡아 강제로 앉히고는 다시 얘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불편함에 식은땀을 흘리며 남자의 얘기를 듣는중 마는중 하며 빠져나갈 궁리를 합니다.

그때...

'..헉!'

대쉬하던 남자가 얘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당신의 허벅지에 손을 얹고 살살 쓸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너무놀라 그만 소리를 내고 말았네요.

그 순간, 대쉬하던 남자의 눈빛이 변하더니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내가 즐겁게 해줄테니까... 응? 어디 갈 궁리 하지 마요~^^)

소름끼치면서 변태같은 웃음을 짓으면 서서히 남자의 스킨십이 강해져갑니다.

당신은 공포에 떨며 아무대응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하네요.

그때,

퍽-

(으아악!)

"어떻게 여주양을 즐겁게 해주나 하고 지켜봤더니... 그저 장난감으로만 갖고논거였네?"

'상디...!!'

그의 다리가 강하게 남자의 얼굴을 내리쳤고 남자는 죽을것같은 고통에 레스토랑을 도망치듯 빠져나갑니다.

당신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는 안도심에 눈물을 터뜨리네요.

'흐읍...흑...호헉... 진짜...무,흠.. 무서웠...웃..다고...호읍'

당신은 그에게 폭 안겨 당신의 공포심을 털어놓네요.

그는 아까의 카리스마는 어디간건지 당신의 눈물을 보고는 크게 놀라며

허둥지둥 그의 손수건으로 정성스레 닦아주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네요.

+빨리 그 공포에서 구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배에 도착할 때 까지 반복하는 그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괜찮다는 의미로 짧은 뽀뽀를 해주자 금세 얼굴이 싱글벙글해진 상디.+

-조로-

'으으.....!하...역시 무리인가..'

당신은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그가 하던 운동을 해봅니다.

역시 그의 시원하고 에너지넘치고 박력넘치는 성격답게 운동 또한 거하네요.

"조로는 항상 이런 무거워 죽을 것 같은 역기운동기구로 운동하는 건가? 으휴~ 하여간

그놈의 근육광은~피식~"

근육광인 그여서인지 항상 무리하게 운동하는 그의 모습이 떠올라 당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흘립니다.

(제가 운동 도와드릴까요?)

'에?'

당신의 뒤에서 한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뒤를 돌아보니 헬스장의 강사처럼 보이네요.

당신은 또 새로운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인데 어찌 사양하겠냐는 듯이

헤맑게 웃으며 cool하게 허락합니다.

(자.. 이상태에서... 이렇게...)

'으으.. 무,무거워요...'

(하하 곧 괜찮아집니다. 자 여기서 다리틀..)

남자는 운동을 도와준답시고 당신의 몸을 슬쩍슬쩍 터치해가네요.

하지만 당신은 운동에 열중한 나머지 알아채지 못한채 그대로 운동만 합니다.

"야.."

'어? 조로 왔어? 나 조로가 하던 운동 배우고 있었...'

툼. 확-

그가 갑자기 당신의 팔을 붙잡아 그의 품으로 끌어들이네요.

'에...? 조로? 왜그래?'

"..."

그는 조용히 당신과 운동하던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는 하는말.

"또 탄남자하고 단둘이 있으면 그남자는 무사하지 못할줄 알아."

+당신이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또 굳이 말해주면 일이 더 커질것 같아
박력있는 말로 상황을 끝내지만 계속 남자가 터치한 당신의 몸 부위부위가 신경쓰이는 조로.+

헤헤헤

여러분

만족하셨나요?

헤헤헤헿

여러분
중대발표할게요.

이제 다음편부터 수위들어갑니다.

하핳하하하핳하하하 ㅎ하하하

기대하세요

ㅎ ㅎ하핳하하하하하

좀 강하다 싶은 수위물이면 친구공개 할거니까

미리미리 친구추가 해주세요 흐흐흐흐흐

*덧글과 공감은 미키마우스에게 에너지의 활력소나 마찬가지!

덧글과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은 센스있으신 분들!

불법도용을 할 경우에는 법적대응!

원피스 상황문답 6-3화

The end.

미키마우스의 원피스 상황문답

미키마우스의 블로그 <http://blog.daum.net/mary200104> 블로그

미키마우스 저자

2014.02.05 17:08:55 발행일

 블로그